

‘비 너무 안 온다’ 고온건조 계속

6월 평균기온 사상 최고... 호스 사용금지 조처 나오기도

영국Britain 전역에 수돗물 호스 사용 금지가 나올 전망이다.

최근 한 달간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강렬한 햇빛과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전국의 저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올 6월은 기상관측 이래 24시간 평균기온이 북아일랜드와 웨일즈에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4번째로 높았다고 기상청은 잠정적으로 말했다.

영국UK 전역 6월 낮 최고 평균은 19.9도(68F)로 사상 두 번째로 높았다고 기상청은 발표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오지 않아 건조한데다 햇살 강한 고온 날씨의 연

속이다. 앞으로 1주일 넘게 비가 오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주 후반엔 낮 최고 33도(91F)까지 예상된다. 다음 주 역시 지난주나 이번 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35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아일랜드에는 이미 수돗물 호스 사용 금지 조처가

〈3면으로 이어짐〉



평양 순안공항 도착한 남측 농구 대표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남북 통일농구 남측 대표단이 탄 수송기가 3일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남북 통일농구는 통산 네 번째이자 15년 만이다. 〈관계기사 3면〉

공식자료

청소년 자녀 고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48** 잉글랜드 거주 12~16세 자녀 중 일주일에 최소 1번 이상 슬프거나 근심 걱정하는 비율
- 11** 12~16세 중 (자신에 대해) 소셜 미디어에서 ‘좋아요 like, 충분히 받아야 한다’며 걱정하는 비율
- 30** 수학 실력이 부족해 초등학교primary school 자녀의 숙제를 도와 줄 용기나 자신감이 없는 부모 비율
- 6** 초등학생 중 장래 직업을 소셜 미디어나 게임 분야에 갖고 싶다는 어린이 비율. 희망 인기 직업 4위 차지
- 44** 영국 거주 16~25세 중 자신의 장래 일자리가 3년 이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는 비율
- 21** 16~25세 중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미래나 장래 삶이 무일푼일 것으로 믿는 비율
- 59** 16~25세 젊은 층이 장래를 염려 걱정하는 원인으로 정치 상황 불안감을 꼽은 비율

자료 : Barnardo's/YouGov children's survey; Varkey Foundation Global Parents' survey; Education and Employers charity primary school children's survey; The Prince's Trust & Macquarie Youth Index 2018

영국 치솟는 물가
4인 가족 £40,000 필요
» **4**

런던 집값 정점 찍었나
4분기째 하락
» **9**

영국 학교 스페인어 인기 ↑
독일어는 ‘종말 조짐’
» **10**

우이혁 칼럼
의사 소통의 실패?
» **26**

윌버던 테니스 개막
페더러 통산 9번째 우승 도전
» **34**

KIB보험
26년 전통의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 브로커
자동차 · 집/가재 · 의료 · 상업 보험 등
JEIB Group : Lloyd's broker & FCA 등록
www.kib.co.uk
☎ 020 7847 8630 info@kib.co.uk
1st Fl, 3 London Wall Buildings, London EC2M 5PD

푸른농원
Green Farm
'푸른농원' 상표를 확인하세요!
떡, 콩나물 전문
☎ 07894 330 988/020 8417 1123

오랜 전통과 신뢰 SINCE 1988
원한의원
British Acupuncture Council
원장 김원규 한약/침/보약/뜸
MRCHM 한의사 MBACC 영국국가공인 침구사
☎ 020 8949 3888 / 07710 627 333
56 Cambridge Rd, New Malden KT3 3QL

낙원푸드
행사 · 파티 · 모임 음식,
김밥 · 도시락 전문 주문받습니다
☎ 020 8949 6474
07920 145 667
89 Kingston Road, New Malden KT3 3PA

HIBIKI KOREAN
이자카야 & 노래방
OPEN: MON~SAT 6pm~1am
Korean Izakaya sushihiroba.co.uk
☎ 020 7430 1895
50-54 Kingsway, Holborn WC2B 6EP

리전트 앤틱
영국 · 프랑스 유럽풍
앤틱 가구 · 소품 전문
장식장 · 식탁 · 그릇 전반
☎ 0771 777 3281 / 020 8337 7876

엘림정수기
since 1998
☎ 020 8337 1333
07738 287 010

대한보험
차 · 집 · Shop
모든 상업보험
FCA 등록업체
On-Line 보험? 대한보험과 비교하시죠!
한국 무사고 경력 100% 인정
☎ 0208 715 0120
jinnydaehan@gmail.com
4a Park Rd, New Malden KT3 5AF

정직하고 성실한
보라여행
항공권 & 여행 전문
☎ 020 8241 7987 / 8949 1279
07804 779 401
www.boratravel.com

ACCA 영국공인회계사
조철현 회계법인
세무신고서 | 법인설립
Payroll서비스 | 재무컨설팅
Tel **0208 337 4465**
admin@choacca.co.uk

이민법 전문
Ashfield Solicitors
체류기간 경과, 비자거절,
항소기간, 불법체류 고민이세요?
이민법관련 최선의 해결책과
조언을 드리는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Specialist in Regularising overstayers,
any visa extensions, Human Rights
& immigration appeals
* 10Y Long Residency £ 690
* British Nationality £ 590
(*our fees excluding vat, Terms apply)
Tel: **020 7835 1297**
info@ashfieldsolicitors.com
3rd Floor, 109 Gloucester Road,
South Kensington, London SW7 4SS
지하철역 Gloucester Rd on Piccadilly,
Circle & District Lines 역 건너편 도보 1분
Ashfield Solicitors is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 SRA Number 599342

사업자금 필요하십니까?
비즈니스 오너/회사 사업자금 대출
No bank statment / No credit check needed
신속 · 편리, 상담 후 24시간 내 승인 · 지급
조기 상환시 이자 면제
상담과 정보 문의 **07734 785 927(Mr Lee) / 07414 817 455**

7월 8일 (일) 개업
한국 관
소주방 노래방
식사도 가능
32면 참조

한경나라
7월말까지 OPEN
일부 품목 **50% Sale**
착한 가격, 각종 보험 가능 명품 안경테 · 선그라스
KOWEKKLY.CO.UK / 04UK.com 업체로 참조
020 8942 2264

워크비자/스폰서쉽
슬렙비자/사업비자
결혼비자/영주권/시민권
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영국이민센터
☎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 www.ukimin.com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서라벌
SORABOL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 맛의 자부심
☎ 020 8942 2334

인터넷수퍼 **SKmart**가
영국 전 지역으로
배달합니다
skmart.co.uk

영국비자센터
IMIN4U
영국정부승인 No. F201601020
스폰서쉽/취업비자/영주권/
시민권/사업비자/
슬렙/배우자 비자/학생비자/
info@imin4u.com
020 3371 1033, 07886 665 921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 첫 평양 착륙... 북한도 '놀랍다' 반응

C-130H 수송기 2대, 성남공항→서해직항로 70분→평양



북한 평양 도착 허재 남자농구팀 감독 등 선수단이 3일 평양순안공항에 도착해 신분확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남북 통일농구는 통산 네 번째이자 15년 만이다. 1999년 9월 평양에서 처음 개최된 남북 통일농구는 같은 해 12월 서울에서 또다시 열렸고, 2003년 10월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다. 농구 경기는 4일 남북 혼합경기, 5일 친선경기를 남녀 선수별로 모두 4차례 연다.

'대한민국 공군'이라는 글자와 '태극'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진 공군 C-130H 수송기가 3일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안착했다.

남북 통일농구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정부 대표단 등 101명을 태운 C-130H 수송기 2대는 이날 오전 10시 3분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발해 70분간 서해 직항로를 날아 평양에 내렸다.

우리 군 수송기의 북한 지역 방문은 분단 이후 처음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5월 23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했던 남측 기자단을 태우고 원산에 착륙했던 정부 수송기(VCN-235)의 방북도 처음이었다. 당시 VCN-235 수송기는 정부가 전반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라는 점에서 엄밀히 말해 군 수송기는 아니다.

이 때문에 군 수송기의 최초 북한 방문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평양 순안공항에 우리 방북단을 마중 나온 북측 인사들도 "수송기 타고 와서 깜짝 놀랐다", "왜 수송기를 타고 온 겁니까", "수송기는 원래 짐을 싣는 건데..."라며 놀라움을 보였다.

군 수송기를 이용한 방북은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빠른 속도로 달라지는 남북관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군 수송기를 이용한 것은 유엔의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행을 꺼

리는 민간 항공기를 투입하는 데 제약이 있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행사에 민간 항공기 운항을 고려했으나 섭외부터 계약, 국제사회의 제재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 촉박한 일정과 여건을 고려할 때 군용기 이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수송기 2대는 방북단을 평양에 내려준 직후 남으로 돌아왔고, 6일 다시 평양으로 날아가 방북단을 싣고 내려올 예정이다.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제작한 C-130H 수송기의 정식 명칭은 C-130 허큘리스(Hercules)이다. 공군은 1988년 1월부터 도입해 현재 16대를 운용 중이다. 이와 별개로 C-130J(슈퍼 허큘리스)도 2014년 4월부터 도입해 4대를 운용하고 있다.

C-130H는 길이 29.7m, 기폭 40.4m, 기고 11.6m로 20여t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 10km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고, 최대 순항속도는 555km/h, 항속거리는 4천km에 달한다.

좌·우측 날개에 각각 2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고,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한다. 완전 무장 병력 64명을 태울 수 있다. 최근에는 80명까지 태울 수 있는 동체 연장형 C-130H-30 기종이 개발됐다.

4천508 마력의 T56-A-15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해 비행속도가 비교적 빠르고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 필요한 거리도 줄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호스 사용해 물 줄 경우 £1,000까지 벌금

〈1면에서 이어짐〉 내려졌다. 물뿌리개가 날개 돌린 듯 팔리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다. 호스를 사용해 잔디밭이나 화단에 물을 줄 경우 £1,000까지 벌금을 물린다.

영국 다른 지역에도 호스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수도물 공급 회사들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 서 물 사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개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기업들이 신중하게 절약을 절제하지 않으면 호스 사용금지 조치가 곧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과 한국은 물 사용이 1일 1인 평균 150리터 이상으로 많은 편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중에서도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편집부

코리아위클리 The Korean Weekly

■ 대표·발행인 The Editor
신정훈 J. H. Shin

■ 주 소 : Cavendish House
Cavendish Avenue
New Malden
Surrey UK
KT3 6QQ

■ 전 화 : +44 (020) 8336 1493
+44 (020) 8949 1188

kowekly@kowekly.co.uk
kowekly.co.uk

연합뉴스=본지특약
기사·사진 콘텐츠 사용 허가

연합뉴스
바른언론 빠른뉴스
yonhapnews.co.kr

영국 대표 동포지 코리아위클리는
대한민국의 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뉴스제공 및
사용에 관한 정식계약을 맺어
독자 여러분께 다양한 기사와
선명한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월 8일 (일) 개업

뉴몰튼과 레인지파크 사이 **한국 관 소주방 노래방**

오픈 특별가 **£30/시간**

식사도 가능, 요리도 가능

open 7 days
일요일 포함 매일
오후 6 - 12:30

Murray Hay Solicitors
박정현 변호사

020 8704 4541 info@murrayhay.co.uk www.murrayhay.co.uk

Property Law 주택/상가 : 매매 임대 계약연장	가정법/민사
Planning Permission 어필 항소 집/건물/토지 법률 상담	유언/신탁
	상속법 등

3 Eastfields Avenue, Riverside Quarter, London SW18 1GN

Summer intensive 발레교실

기간: 8월 27일 - 31일 금

- 엄마와 함께하는 스트레칭 (3~4세)
- 월 화 수 3일 코스
- Level 1, beginners 5~7세
- 2 class per day 5일 코스
- Level 2, 8세 이상 - 2 class per day 5일 코스

☎ 07792 541 846 **샤인 발레 (구 스페셜 발레)**

★ 영업시간 안내 월-금요일 : 8시30분 - 6시, 토요일 : 8시30분 - 2시(주일은 쉽니다)

아주자동차대학 유럽교육센터 지정업체

K&P Motors

차량 점검 및 정비 전문



전문취급점 KUMHOTYRES



타이어 점검 / 교환 / 밸런스 / 펌크
15년 타이어 전문연구 및 기술경력



배터리 / 브레이크 / 에어컨 가스 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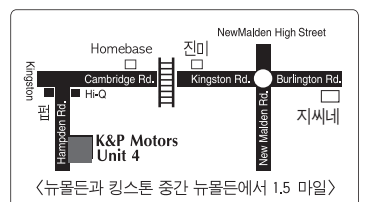
수리, 점검 / Full-Service / MOT

정직하고 성실하게 고객여러분들의 차량을 책임집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효율적 차량 및 고객관리로 선진화된 서비스를 경험하세요. 넓고 깨끗한 자체 정비공장이 여러분의 신뢰를 더해갑니다. 대표 김성호 (전 금호타이어 기술팀장)

Tel. 020 8549 3838

Fax : 020 8546 6605

Unit 4, Hampden Rd, (off Cambridge Rd.),
Kingston KT1 3LG



99세 할머니 ‘사랑의 바느질’… 이웃나라 고아들에 원피스 선물

재난지역 고아들을 위해 옷 짓는 만 99세 마사 헤프트 할머니

“내 재능과 수고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안길 수 있다면…”

미국 플로리다 주 클리어워터에 사는 마사 헤프트(99) 할머니가 오늘도 부지런히 재봉틀을 돌리는 이유다.

15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초강력 허리케인 ‘마리아’로 큰 피해를 본 중미 섬나라 푸에르토리코 아과디아의 한 고아원 여자 어린이 60여 명이 최근 예쁜 원피스를 선물로 받았다.

헤프트 할머니가 동네 교회 퀼트

동호회원들과 함께, 기부받은 색색의 천을 재단해서 레이스와 리본을 매단,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고 아직 아무도 입지 않은 새 원피스다.

각 원피스에는 스페인어로 “우리의 사랑을 느낀다면, 웃어요”라고 쓰인 쪽지가 붙어 있었다.

다섯 살 때부터 바느질을 배웠다는 헤프트 할머니는 동호회원들과 함께 퀼트 이불을 만들어 보육시설에 기부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그는 2010년 아이티 지진 발생 때

는 부모를 잃은 어린이들을 위해 이불과 원피스 등을 만들어 보냈고, 지난해 허리케인 마리아가 덮친 푸에르토리코 어린이들을 위해 다시 원피스를 만들기로 했다.

정성이 흠뻑 담긴 선물의 전달은 할머니의 손녀딸 타라 로먼과 플로리다 주 팜비치 카운티 보안관인 손주사위 샘 로먼이 맡았다.

원피스를 받은 레그라스 데 파즈 고아원의 막달레나 히메네즈 원장은 “얼굴도 모르는 99세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직접 만들어 보내준 원피스를 통해 사랑과 보살핌의 손길을 느낀다. 큰 축복”이라며 “많은 이가 이 아이들의 존재조차 모른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헤프트 할머니는 “생명이 있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누군가를 위한 바느질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할머니는 또 “단 하나 바람이 있다면 재봉질 속도를 조금 더 내고 싶다”고 웃으며 말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버려진 강통과 파이프가 내 다리” 시리아 피란민 8살 소녀, 걷는 꿈 이룬다

“아버지 사랑이 역경을 희망으로 바꿔”… 세계에서 기부 의사 답지

“힘겨운 난민 캠프 생활 중에도 어떻게든 걷고 싶어하는 딸의 꿈을 이뤄 주려 한 아버지의 사랑이 희망을 일궈 낸 것이죠.”

심한 기형으로 태어나 다리를 절단한 시리아 피란민 소녀 마야(8)와 아버지 알리 메리를 반긴 터키 의료진은 마야 가족에게 큰 감동을 했다고 먼저 털어놨다.

터키 관영 아나톨루통신(AA) 등 언론에 따르면 마야는 하체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채 태어났고, 최근에는 추가로 다리 절단수술을 받아야 했다.

성장 단계에 따라 몸에 맞는 의족이 필요했지만, 내전과 피란민 생활을 겪는 마야의 가족은 의족을 맞출 형편

이 되지 않았다.

시리아 내전의 최대 격전지 알레포 출신인 마야 가족은 올해 초 시리아 북서부 이돌립주에 있는 한 난민캠프에 자리를 잡았다.

수술 후 텐트에만 머무르는 딸을 보다 못한 아버지는 PVC 파이프에 빈 참치캔을 이어붙여 의족을 만들어 줬다. 아버지 역시 다리가 거의 자라지 않은 채로 태어난 장애인이다.

아버지 메리는 “전에 쓰던 PVC 파이프 의족은 바위투성이인 땅바닥에서 버틸 만큼 튼튼하지 못해 캔을 이어 붙였다”고 설명했다. 아버지가 임시변통으로 만든 강통 의족 덕에 마야는 걷는 흥내나마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의족이 아니기에 절단 부위뿐만 아니라 팔과 손 같은 다른 신체에 무리가 가고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통증이 심할 날 마야는 아버지의 의족으로도 걷지 못하고 기어서 등교했다.

난민캠프에서 취재진을 만났을 당시 마야는 “걷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강통 의족’을 착용한 마야의 모습이 최근 아나톨루통신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마야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지원 의사를 표현했다. 터키 적신월사(적십자에 해당하는 이슬람권 기관)와 이스탄불에 있는 한 의수지(義手肢) 클리닉의 도움으로 마야는 터키에서 의족 치료를 받

을 수 있게 됐다.

의수지 전문가 메흐메트 제키 출주 박사는 “마야는 빠르면 3개월 안에 걷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세계 각지에서 마야를 돕겠다는 기부 의사가 답지했으나 클리닉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출주 박사는 또 “아버지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런 수단도 없이 역경을 희망으로 일궈냈다”고 말했다.

메리는 “마야가 걸어서 아프지 않게 등하교하는 모습을 보는 게 꿈”이라면서 “그 꿈이 이뤄진다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본지특약

재영한인 게시판

■ 뉴몰든 순회영사 안내

- ◆일시 : 7월 11일(수) / 25일(수) 오후 2시30분-4시30분
- ◆장소 : 레인즈파크 한인종합회관(108-110 Coombe Lane, SW20 0AY)
- ◆문의 : 주영국대사관 영사과(020 7227 5500)

■ 영사민원실 서비스 임시 중단 안내

주영국대사관 본관 건물 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영국대사관이 임시 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사 민원실이 2018년 7월 5일 목요일 휴무 예정이오니 영사 민원 서비스 이용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사 민원 서비스는 2018년 7월 6일 (금) 부터 기존 주영국대사관(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에서 정상 업무 할 예정입니다. 영사 민원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주영국대사관 영사과(전화:020-7227-55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73주년 광복절 기념식 및 한인축제

- ◆일시 : 2018년 8월 18일 토요일
- ◆행사 : 광복절기념식, 사물놀이, 부채춤, 가야금, K-Pop공연, 장기자랑, 라플 주춤(한국왕복 항공권 외 상품 다수)
- ◆장기자랑 참가 신청 및 문의 : 07793 502 960 kfestival2018@gmail.com
- ◆장소 : Glass House, 14 Coombe Road, New Malden KT3 4QE
- ◆주최 : 재영한인총연합회

■ 제 5회 런던 유럽통합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 ◆기간 : 2018년 7월 27일(금)-29일(일) 2박 3일
- ◆참가대상 : 만 20세-40세 미만 청년으로 창업과 무역에 관심있는 자. 옥타회원으로 무역스쿨 재수강 희망자. 창업 및 무역에 관심있는 유럽 재외동포.
- ◆교육장소 : University of Surrey, Guildford, Surrey GU2 7XH
- ◆참가신청 : www.oktalondon.com
- ◆문의 : 이내영 oktalondon.uk@gmail.com
- ◆주최 : 월드 옥타 런던

주영국대사관 알림

■ 오토바이를 이용한 강도 및 절도사건 주의 요망

최근 발표된 런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런던 전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강 절도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주요 범죄 유형으로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핸드백 또는 핸드폰 등을 소매치기하거나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유리를 깨고 내용물을 절도해 가는 유형, 무리를 지어 상점 등을 급습하는 등의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토바이 이용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런던경찰청에서는 이동 중 핸드폰 사용을 자제할 것, 부득이하게 이동 중 전화를 받거나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잠시 상점이나 카페에 들어가서 사용할 것, 길거리에서 음악을 듣거나 하는 등 주의를 감소시킬 수 있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할 것, 사람들이 긴장을 늦추는 퇴근길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 경찰사칭 절도범죄 각별한 주의 요망

최근들어 런던 시내 곳곳에서 경찰관을 사칭해 불심검문을 한다는 이유로 여행객들의 가방을 수색하는 척 하며 지갑안 현금 등을 절도하는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범죄 유형〉

- ① 마약 단속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접근(주요 관광지 주변 인적이 드문 골목길 등에서 지도를 보고 있거나 스마트폰으로 길찾기를 하는 여행객들이 주타깃)
- ② 여행객 가방과 지갑을 검색해야 한다며 가방과 지갑을 건넬 것을 요구
- ③ 일당중 한명이 검색을 하는 동안 나머지 일당들은 계속해서 말을 시키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사 이 지갑안 현금 등을 절취
- ④ 검문을 끝낸후에는 위압감을 주며 빨리 현장을 떠나라고 해 피해자들이 지갑안을 확인할 여유가 없도록 분위기를 유도
- ⑤ 나중에 지갑안을 확인한 후에야 현금 도난 피해 사실을 알게 됨

〈대응 요령〉

영국의 경우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경우 반드시 경찰모와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소속, 이름, 불심검문 사유 등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모와 경찰제복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사복차림에 경찰 조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한 경우도 해당)에서 본인들이 경찰관이라면서 가방 또는 지갑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마시고 즉시 긴급전화 999로 신고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시 스마트폰에 ‘해외안전여행’ 앱을 다운받아 두시면, 테러·도난·교통사고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 매뉴얼과 예방법, 각국 대사관·영사관 비상연락처, 현지 긴급구조 연락처, 외교부 영사콜센터 연락처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 발생시에는 즉시 영국 현지 경찰과 우리 대사관 및 국내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영국 경찰 긴급전화 : 999 또는 101
- ※ 주영대사관 : +44-(0)20-7227-5500(주간), +44-(0)7876-506-895(야간)
- ※ 영사콜센터 : +82-(0)2-3210-0404

하숙 · 민박

 07792 541 846

jeongtaek2@hotmail.com

포트폴리오 전문 최고 합격률!
영국미술/디자인 대학 입시, A-Level/
GCSE, 스콜라쉽, 어린이 미술반
☎ 07874 340 245 무료 상담

비즈니스 출장 관광, 통역 서비스
☎ 020 8241 7987/ 07771 561 954

금호타이어 전문취급점
☎ 020 8549 3838

 07947 299 669

- 매매 및 모기지 : 020 8949 4989
- 임대 : 020 8942 3579
www.sr4u.co.uk

뉴몰든역 3분거리의 고급 주택, 카드결제 가능, 출장 주재 연수,
집 구하기전 잠시, 최고 욕실룸, 넓은 가족실, 고속 인터넷, 세탁,
조식 한정식, www.misolondon.com 카톡 ID: misohouse
☎ 0782 333 6807 / 0208 288 9251

믿을 수 있는 24시간 캡, 공항· 시내· 장거리· 명품아울렛 픽업,
학생이사· 대리운전· 관광가이드, 벤츠 E-Class 및 8인승 밴
☎ 07879 4051 40

23년 무사고 경력, 런던 교통국 미니캡 라이선스 보유,
공항, 시내시외픽업 및 관광가이드, 항상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 0784 163 0606

⑤ 지면광고는 코리안위클리 웹사이트 koweekly.co.uk에 무료 게재합니다. (구인광고 제외)

"Please note that any adverts contained in Korean Weekly does not imply a recommendation or endorsement or approval by Korean Weekly Newspaper of any advertising claims or of the advertiser, its product, or services. Korean Weekly reserves the right to accept or reject any advertisement submitted for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While Korean Weekly employs its best endeavours to confirm the identity of the advertisers, it does not attempt to investigate or verify claims made in advertisements appearing in its Newspaper publications and on its websites. Korean Weekly disclaims any liability whatsoever in connection with advertising appearing in its newspaper and on its websites."

직불카드(debit card)나 신용카드(credit card)
결제할 수 있습니다.

4개월(16주): £ 26 / 6개월(26주): £ 36 / 1년(52주): £ 57